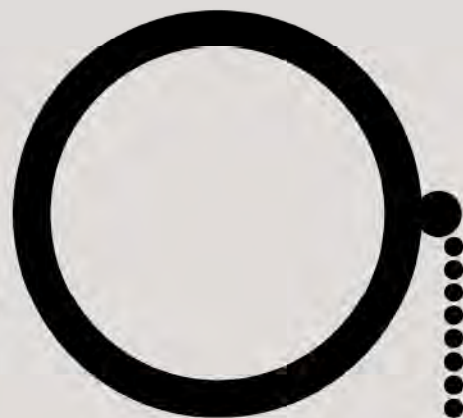


**아들아, 너는
성남 스타일이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성남제일교회. 성남시가 태동하던 1969년 5월 15일에 개척돼 46년간 성남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온, 성남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이다. 하지만 성남을 대표하는 교회로 한때 2,000여 명을 바라보던 교회가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할 즈음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5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침체됐었다.

2002년 7월 9일, 홍정기 목사가 부임할 당시 성남제일교회는 부교역자가 가지 말아야 할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다. 실제 홍 목사가 부임해 부교역자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더니, 이력서가 열 장 미만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60~70장의 이력서가 들어올 정도다. 부임 당시에 만 원짜리 현금은 다섯 장 정도밖에 되지 않고, 천 원짜리 현금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지금은 나눔과 섬김이 풍성해졌다. 2014년 현재, 성남제일교회가 속한 성남노회 중원시찰만 하더라도 출석 인원이 10% 감소하고 재정이 10~15% 줄어든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제일교회는 계속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작년 대비 예산이 10% 이상 성장했다.

부임 당시 500여 명이던 장년 출석 성도 수는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930여 명에 이르렀다. 출석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임 당시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들이 많아 성도들의 인적 구성이 역삼각형 구조였는데, 지금은 원통형 구조가 됐다. 부임 당시 30~40여 명 모이던 청년들은 지금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다. 2013년 성탄절에 유아세례를 받은 영아가 11명, 2014년 상반기에 유아세례를 받은 영아가 14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들이 결혼해 자녀를 얻는 비율도 높아가고 있다.

출석 성도 숫자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교회학교 출석수도 줄어드는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현실에 역행하는 교회, 성남제

일교회의 내밀한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이제부터 지난 세월 성남제일교회의 역사를 더듬으며, 건강한 교회로 혁신되고(restructuring), 체질 개선(reengineering)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자. 가장 전통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이 교회가 성남에서 주목받는 교회로 꾸준히 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저는 성남 스타일이 아닙니다”

홍정기 목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랑의교회(사역 당시 담임: 고(故) 옥한흠 목사)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다. 홍 목사가 성남제일교회에 부임할 당시, 강남에서 성남은 ‘선교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홍정기 목사는 ‘전통적인 교회에는 걸맞지 않은 수사적 화려함’을 갖고 있는 목회자였다.

부임 후 홍정기 목사가 설정한 교회의 다섯 가지 비전도 홍 목사가 가진 수사적 화려함이 그대로 배어난다. 홍 목사는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당장 오늘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을 정립할 때 주신 은사대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진통하며 교회의 체질이 변화되는 단계를 확인하면서, 하나씩 실현 가능한 사역들을 접목해갔습니다.”

2002년 7월 9일 부임 당시 성남제일교회가 위치한 중앙동 인근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홍 목사는 ‘이 동네가 썩 잘사는 동네가 아니고, 한을 가진 동네라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 목회자처럼 하는 것은 호사’라고 생각했다.

대다수의 성도는 절대적으로 가난해서라기보다는 하루 벌 어 하루 먹는 불규칙한 소비패턴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인색해지고, ‘내 삶은 쪼들리는 삶’이라는 의식에 눌려 있었다. 당연히 헌금은 쥐꼬리만 하고, 십일조는 믿음 있는 사람이나 하지 하며 그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청년들 가운데는 조손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많았다. 그러니 마치 선교지에 부임한 선교사가 문화적인 적응력을 발휘하면서 진리를 선포



홍정기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사랑의교회에서 교육담당 사역자로 섬겼고, 2002년에 성남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현재까지 섬기고 있다.



하듯, 홍 목사의 목회는 선교사의 목회,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사역이었다.

부임하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홍 목사는 “하나님, 저는 성남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정기야! 너는 절대로 강남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절대로 강남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다. 그때 홍 목사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고 회고한다.

사실, 홍 목사는 예수를 믿기 전인 청소년 시절에 무당이었던 친할머니에게서 “너는 의사, 교사, 목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봉천동에서 자라났다. 그 당시는 서울의 남부순환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기 전이었다. 도로 공사만 하고 비포장이던 시절이었다. 하나님께서 홍 목사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네가 성장한 곳이 어디냐? 봉천동과 성남이 다른 것이 뭔데?”

홍 목사는 “성남으로 인도하신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손으로 제 입을 가리나이다(욥 40:4). 욥의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제가 강남을 가지 않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 그러나 전통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다. 부임 다음 날인 7월 10일에 교회 창립 35주년 임직식 및 담임목사 위임식이 열렸다. 한 지역 교회가 창립 이후 한 지역에서 35년이 지나는 동안 축적된 나름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도, 무시해서도 안 되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홍 목사는 “성남으로 인도하신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손으로 제 입을 가리나이다(욥 40:4). 욥의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홍 목사는 이렇게 그 시절을 회고한다. “그때 내가 무모하게 여기저기 나대고, 교회를 바꾸겠다고 덤벼트면 이상해질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전통 교회에 부임하는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나도 범했을 것입니다.”

홍 목사는 부임 전 “교회를 잘 살펴보고 서둘지 말게. 주보 바꾸는 것도 조심하게”라는 옥한흠 목사의 권면에 따라 부임 후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송충이는 술잎을 먹는다

이렇게 2년 동안 교회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인내하며 학습한 홍 목사는 제자훈련에 대해 강조하며 땅을 기경해갔다. “그런다고 바뀌어?”, “첻, 제자훈련 받아도 똑같네! 뭐...”라며 투덜대는 제자훈련에 대한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송충이는 술잎을 먹는다’라는 말처럼 홍 목사는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온몸으로 익혀온 제자훈련 목회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갔다. 2년의 기다림 끝에 시작한 장로 제자훈련을 기점으로 안수집사 반까지 목요일, 토요일, 주일 오후 이렇게 3개 반을 이끌며 헌신했다. 홍 목사는 체중이 65kg에서 57kg까지 줄어든 정도로 진액을 쏟아 부었고, 4기 훈련생들이 배출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제자훈련 사역이 어느 정도 안착했다. 5~6기 훈련 때부터는 체질이 변화되고, 열매를 향해 나아가

는 안정기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열매가 나타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체중이 줄 정도로 몸부림하면서 사역한 기간을 지나, 꽃이 피듯이 성장 곡선도, 교회 문화도, 재정도, 청년들의 성장도, 선교도, 미래 조망의 안목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 부교역자들도 담임목사와 영점 조정(zero point adjustment)이 돼서 “아” 하면 “어” 하고 서로 알아듣는 팀워크를 통해 안정되고 견고해졌다. 치즈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헛바퀴 도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긴 시간 이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마침내 수령을 빠져나왔다.

교회는 나를 바꾸는 훈련소이다

성남제일교회의 다섯 가지 비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철저한 훈련”이다.

“교회는 나를 바꾸는 훈련소이다”라는 모토 아래 성남제일교회는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도록 양육과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새가족반’(5주)을 거치고 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일상 신앙생활, 기독교 역사 등을 다루는 ‘기독교 ABC’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13주 과정의 ‘성장반’, 1년 과정의 ‘제자반’을 거쳐 사역 파송 전에 1년 과정의 ‘사역반’을 받게 한다.

2014년 8월 기준 성장반 수료자는 497명, 제자반 수료자는 성장반 수료자의 80%에 달하는 398명, 사역반 수료자는 제자반 수료자의 54%에 달하는 215명에 이른다.

성남제일교회는 사역반 수료자들을 소그룹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으며, 교회 내 소그룹은 청년 소그룹까지 약 100개에 이르고 있다. 매주 참여 인원은 550여 명 정도이다.

2013년에 제자훈련을 받은 박수현 집사(44세)는 제자훈련을 통해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게 됐고,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임형석 순장으로부터 배워가고 있다. 박 집사는 40대 엄마들의 중보기도 모임인 ‘에스터 기도모임’을 결성해 헌신하기도 했다. 이것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영혼 그대로 서서,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게 될 때 주어지는 제자훈련의 참된 열매인 것이다.

성남제일교회화(化) 되다

성남제일교회의 양육, 훈련 시스템에 특별한 점 하나가 있다. 사역훈련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수전도단의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를 지역 교회에 접목한다는 것이다. 사역훈련 전체 과정은 1년인데 1~2권은 담임목사가 훈련하고, 3~4권 소그룹인도법과 친구약 성경개론은 DTS로 대체해 16주간 훈련하는 것이다. 6월 중하순에 아웃리치를 다녀오는 것으로, 모든 훈련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8월에 제자훈련 수료식을 가진다.

홍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DTS를 접목한 다른 교회나, 예수전도단의 DTS보다 성남제일교회의 DTS는 그 효과가 증폭됩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준비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경직성이 많이 해소되고, 선교적인 의식으로 무장된 215명의 DTS 수료생들은 성남제일교회의 영적 주군(主君)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아웃리치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후배 DTS 훈련생들을 위해 재정을 나누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이러한 은혜는 교회 곳곳에서 차고 넘쳐 흐르게 됐다고 한다.

청년들도 장년들과 동일하게 DTS 훈련 사역을 진행한다. 그 결과 세대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급속하게 줄었고, 청년과 장년 세대의 사역 스피릿 공유가 가능해졌다.

성남제일교회가 위치한 동네는 워낙 술 문화가 강했다.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술집이 많았다. 홍 목





사는 부임 초기 '퇴폐 문화 한가운데 있는 교회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뜻있는 참여'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참여와 문화적인 참여로 나타나 결실을 맺고 있다. 성남제일교회의 청년들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참여캠페인'을 벌인다. 공명선거캠페인을 사회적 참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문화적 참여는 '마토(마지막 토요일)페스티벌'이 대표적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3년째, 문화적 혜택이 약한 성남의 곳곳을 찾아가 교회 팀, 외부 팀이 모두 참여한 기독교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성남 지역 자체가 문화적으로 빈약하니까 문화적 심금을 해보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해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다. 마토는 이미 법인화돼 있다.

홍 목사는 이 또한 사회적 리더십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리더십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영적 주도자인 것이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열매의 가장 큰 바탕은 담임목사의 헌신에 있다. 홍정기 목사는 27세에 신학에 헌신했다. 그리고 2013년 57세가 돼 림프종(림파선 암)에 걸릴 때까지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쉼 없이 달려왔다. 사역 DTS가 진행된 8년 동안 홍정기 목사는 자신이 강의하지 않는 훈련 시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훈련의 자리를 지켰다. 토요일 저녁 사역반, 주일 설교를 감당하고 집에 들어간 시간이 평균 밤 11시였다. 심방과 장례도 홍 목사가 담당했다.

그것이 훈련한 목사로서 성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안일에 머물기보다는 성도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몸을 혹사했다. "종지 않은 경기 속에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가 유유자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마음의 태도로 무장돼 있기 때문이다.

홍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건물 청소를 하면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의 가정으로 인해 고민하면서, 청년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아닌 부모와 살면서, 자영업 하는 분들은 '언제 사업을 접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좀 힘들다고 그들을 보면서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지요. 그것은 범죄수준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팔짱 낄 수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헌신의 결과였을까? 작년 5월 중순에 림프종을 발견하게 됐고, 11월까지 여섯 번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림프종은 면역체계가 무너져 생긴다. 암을 발견하기 전 1년여간 여러 가지 전조 증세가 나타났다. 잔병도 많고, 항상 피곤하며, 한번 몸살이 오면 3일 정도 아파 누웠다. 자다 보면 진땀이 많이 났다. 설교하고 나면 목이 쉬었다.

홍 목사는 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여한 없이 한 세대를 정직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9cm였던 종양은 현재 1.2cm 크기로 축소됐다.

플러스알파의 은혜

홍 목사는 이렇게 고백한다. "지루한 투병의 기간을 넘기고 나서 목회 현장에 복귀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알파'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필립 안시 같은 영성 작가들의 『하나님의

은혜」같은 책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아픈 이후에는 공감과 해답으로 마음에 와 닿는 수준까지 눈이 열렸다는 것이다. “훨씬 더 겸손해졌어요. 훨씬 더 정직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했고, 내 수준이 아닌데 내 수준이라고 했었습니다.”

홍 목사가 부임 초기, 경영학적 마인드로 교회를 움직여가려고 발버둥 칠 때 그래도 교회가 홍 목사의 인간적 발버둥에도 체력을 지탱해주고, 성도들이 자신을 기다려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사실, 어느 목회자와 다를 바 없이 홍 목사도 아프기 전에는 열매를 빨리 얻고 싶어 하는 ‘목회 성과주의’라는 것과 떼어 수 없는 관계였다. 홍 목사는 한동대학교에서 2년 과정의 경영학 석사 과정인 Socio-MBA 리더십 과정을 수료했다. 그 과정을 통해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던져졌을 때 지역을 연구하는 방법, 포지셔닝하는 방법,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그것이 성남에 와서 목회 현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경영학적인 마인드와 분석적 사고로만 접근한다면 영적으로 폐해가 있다. “그때의 나는 설교를 하면서 영적인 것보다 소위 자기 계발에 몰입된 책들에서 나온 통찰력(insight)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게 누적되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급해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죠?’라는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적 동의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안정적인 일체감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제자훈련을 접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됐다. 개인적인 간증과 경험을 통해 나타난 은혜와 변화는 경영학적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암’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은혜의 수준은 ‘제자훈련 목회’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것으로 플러스알파 됐다. 홍 목사에게 ‘암’이라는 터널은 인생과 사역을 새롭게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한 창조적 파괴의 기간이었다.

담임목사의 투병 중에도 교회는 요동하지 않았다

홍 목사가 투병하던 2013년도에도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예배 출석 인원도 줄지 않았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홍 목사가 투병 중일 때 그동안 잠재돼 있던 신천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자훈련으로 무장된 교회였기에 곧바로 수면 위로 드러났고, 큰 부작용 없이 교회에서 정리됐다.

위기의식을 느낀 성도들은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답게 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다짐과 격려로 홍 목사를 위해서 ‘릴레이기도회’를 하고, ‘저녁기도회’도 하면서 자리를 지켜줬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와 교회를 찾던 기성 신자들에게 당연히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작년 연말부터 성장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등록하기도 하고,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는 기성 신자들도 많이 정착하고 있다.



사역 DTS가 진행된 8년 동안
홍정기 목사는 자신이
강의하지 않는 훈련 시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훈련의 자리를 지켰다.
그것이 훈련한 목사로서
성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 것이다.

저에게
당신이 최고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1서 4:11





담임목사의 투병을 통해 성도들과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담임목사 대신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부교역자들을 바라보며 애정이 깊어졌다.

은사 중심적인 신앙 색깔이 강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김기훈 집사(41세)는 2009년 3년간의 지방근무를 마치고 성남제일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다. 그리고 주변의 교회를 탐방하던 중 성남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여해 홍 목사의 설교를 듣고, 새가족 면담을 한 이후 등록하기로 했다.

김 집사의 말을 들어보자. “장로교회라 예배가 엄숙한 분위기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찬양도 풍성했고, 목사님의 말씀도 역동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님과 면담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을 중요시하니까, 여기서는 뻔질거리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해 주셔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선순환 구조 속에서 돌아가게 하고 가족을 붙이는데 담임목사가 병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교난이 가져다준 은총

홍정기 목사가 투병하는 동안 부교역자들이 일치단결해서 교회를 잘 지켜줬다. 행정목사로 섬기는 이창근 목사를 중심으로 담임목사의 리더십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교회의 상황을 아우르고,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켜냈다. 나침반의 바늘이 외부의 충격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정북을 향하려고 끊임없이 방향을 조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담임목사의 투병을 통해 성도들과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담임목사 대신 묵

묵히 자리를 지켜준 부교역자들을 바라보며 애정이 깊어졌다. 홍 목사가 항암치료를 마치고 2013년 12월에 복귀했을 때는 자녀들이 장기 여행을 다녀온 아버지를 맞이하듯 온 성도들이 반가워했다. 홍 목사의 메시지도 따뜻해졌다. 설교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데, 설교에서 배어 나오는 느낌이 더 따뜻해졌다.

성남제일교회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게 나누는 사랑방이다”라고 정의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나눔으로, 성정이 그려주는 인간복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 홍정기 목사가 투병하는 중에 ‘동네방네 축제’를 열었다. 중동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수를 천 그릇 이상 팔아 지역주민들을 섬기는 나눔 행사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성남제일교회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교회다”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올해는 지역주민센터, 복지관, 초등학교 등과 협력해서 준비하고, 성남시 예산도 투입해 진행되는 행사로 확대됐다.

그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휴일 구제 사역을 위해 재정의 20%를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성도들도 많아졌다. 얼마 전 암 환자인 성도가 수술을 했는데 DTS를 수료한 그 성도의 아내가 홍 목사에게 봉투를 하나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홍 목사가 보기에 사실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었다). 암 환자가 생기면 전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100만 원을 전달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홍 목사의 건강은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상반기에는 격주로 1~2부와 3~4부 설교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외부 강사와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감당했다. 지난 6월부터는 조금씩 회복돼 홍 목사가 총 4번의 예배 설교 중 매주 1,3부나 2,4부에 두 번씩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현재 성남제일교회가 위치한 성남시 구시가지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다. 이미 재개발이 진행된 곳도 있고, 성남 신흥도시 개발지구로 묶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교회도 현재 부지를 재개발로 내주고, 지금보다 훨씬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할당받은 땅에 교회를 새로 지어야 한다.

현재 성남제일교회는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청년부는 다른 교회학교 모임에 공간을 내주고, 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근처 노래방의 방 5개를 주일 오후에만 임대해 소그룹 모임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홍 목사는 건물을 짓는 데 50억이 들어가야 한다면 30억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고, 20억은 사람을 기르는 일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홍 목사는 자신이 옥한흠 목사의 영향으로 인해 담임목회자로 부임하는 데 유익을 누린 것처럼, “성남제일교회 부 목사 데려가면 목회 제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한다.

옥 목사 자신이 한눈팔지 않고 목회하다가 아파서 끄궁거리고, 부교역자들을 사랑해 주던 덕을 본 것처럼, 후배

교역자들에게도 그렇게 나누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교회를 더욱 교회 되게

홍 목사는 남은 사역의 여정 가운데 교회를 더욱 교회 되게 하는 목회를 꿈꾸고 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받는 때에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유치원 사업, NGO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썼지만 사회적으로 호평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도 격려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체질은 흐트러졌습니다. 지난 20여 년 그렇게 했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홍 목사는 강조한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속이 후련해지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수정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과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와 훈련을 통해 그것만 줄 수 있어도 존재 가치가 있고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목사는 한눈팔지 않는 목회자가 되려고 자신을 채근하고 있다. 땅 넓히기를 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명함을 내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다. 그 래야 무늬는 교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그런 불협화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홍정기 목사의 그 살아 있는 눈빛을 통해 여전히 선교사적인 사명에 매인 목회자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제자훈련은 구호가 아니라 열매로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본다. 

〈박주성 목사〉

